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한국적 성장소설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 쓴 최시한 교수

성장소설은 우리 독서경험의 가장 순수한 자리를 차지한다.
 성장소설을 읽으며 우리는 조금씩 자라났기 때문이다.
 성장소설은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삶이 있다는 것,
 그 삶 위에서 세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이는 곧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의 주제이기도 하다.

누구에게나 《데미안》이나 《호밀밭의 파수꾼》을 열심히 읽던 시절이 있었을 것이다. 그 시절은 우리가 한참 세계를 알아가던 때와 겹친다. 성장소설 읽기는 우리 기억의 속살에 자리잡은 순결한 독서경험에 속한다. 최시한 교수(48, 숙명여대 국문과)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순결한 독서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문학과지성사)을 썼다.

“일선교사들을 상대로 국어교육에 대해 강의하다 보니, 아이들에게 읽힐 만한 소설도 없을 뿐더러 도서시장에 청소년이란 개념조차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성장소설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하다보니 결국 제가 직접 작품을 쓰게 됐죠.”

척박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은 씌어지기 시작했다. 1인칭 일기체를 도입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췄고 아이

들에 맞는 언어와 문장을 사용해 문장을 사용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최고수가 기울인 노고 덕택에 이 작품은 성장소설이 드문 우리 현실에서 문단과 독서계 모두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성장소설은 교양소설이라고도 합

니다. 말하자면 한 존재를 전인(全人)으로 성숙시키려는 목적으로 씌어진 소설을 뜻하죠.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특정한 이데올로기하에서 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이데올로기가 각 문화권이나 국가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이죠.”

최교수는 황순원의 《소나기》를 예로 들어 자신의 주장을 설명한다. 제임스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 같은 외국작품이 종교문제에 깊이 천착한다면, 《소나기》는 사랑과 죽음과 운명을 이해하는 과정을 담았다. 서구에 신과 맞서는 주인공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운명을 이해하는 주인공이 일반적이다.

“헤세의 《데미안》도 자세히 살펴보면, 20세기 초 전쟁의 광풍이 부는 독일사회의 영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뒤 가르의 《회색 노트》의 결말은 전쟁을 풍자하죠. 또 호손의 《큰 바위 얼굴》에서는 청교도의 윤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다른 세상에서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얘기라 느낄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실용적인 성장소설이 필요한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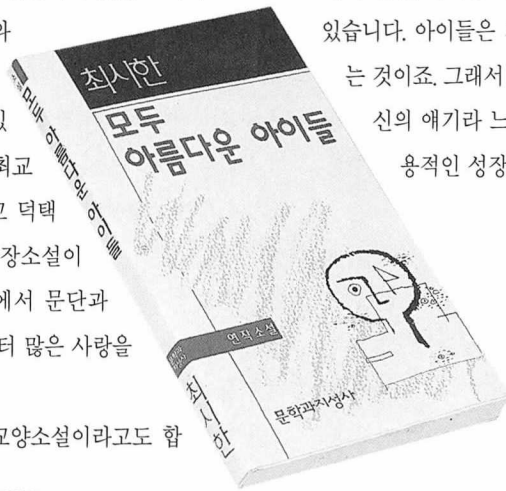
최시한 교수

일반적인 의미에서 성장소설은 갈등과 맞서는 한 인물의 입사과정(initiation)을 그린다.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의 두 주인공 선재와 운수는 무엇과 맞섰고 또 어디로 들어가는 것일까?

“바로 몰이해입니다. 이해받지 못한다는 것, 남들이 자신을 오해한다는 것, 스스로도 오해한다는 것을 말하지요. 언뜻 보기에 교육제도와 맞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몰이해와 아이들을 대비시켜 놓았습니다. 성장소설이 끝나면 주인공들은 변해갑니다. 제 소설의 경우를 든다면, 선재는 불화하는 세계를 받아들여지게 되고 운수는 더 이상 이해받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이해하는 자로 성장해 나가죠. 그 두가지 방식을 모두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의 결말 부분에서 운수는 대안학교를 찾아 떠나고 선재는 고립된 섬에서 나와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 단 하나의 모범답안이 아니라 여러 개의 참고사항만을 제시할 뿐이다.

성장한다는 것은 이렇게 자신의 답안을 찾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성장소설의 주인공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지만, 처음 떠나올 때와는 사뭇 다르다. 주인공이 다른 자리에 서게 되듯, 성장소설을 읽으며 독자들도 변해간다. 성장소설의 마지막 장을 덮을 때, 우리의 시선은 깊고도 넓어진다. 성장소설과 함께 우리는 자란다. — 김연수 기자



문학과지성사/A5변형
206면/5800원